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통통 하게 소비자는  행복 하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3.1.11.(수)		
담당부서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1팀	책임자	실 장	김택주	(02-3145-7860)
		담당자	팀 장	류태열	(02-3145-7863)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					

I 간담회 개요

- 1월 11일(수) 금융감독원은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22.10.4. 보도자료)

회계법인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 1. 11.(수) 15:00 ~ 16:00

☑ 장 소 : 금융감독원

☑ 참석자 : (금감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 김택주 감사인감리실장
(회계법인) 7개 회계법인 대표 등*

*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

II 주요 논의내용

-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 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 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수행 절차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질문 이나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수행	회사가 작성한 내부통제 문서 검사 , 통제절차의 재수행 , 관찰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

〈참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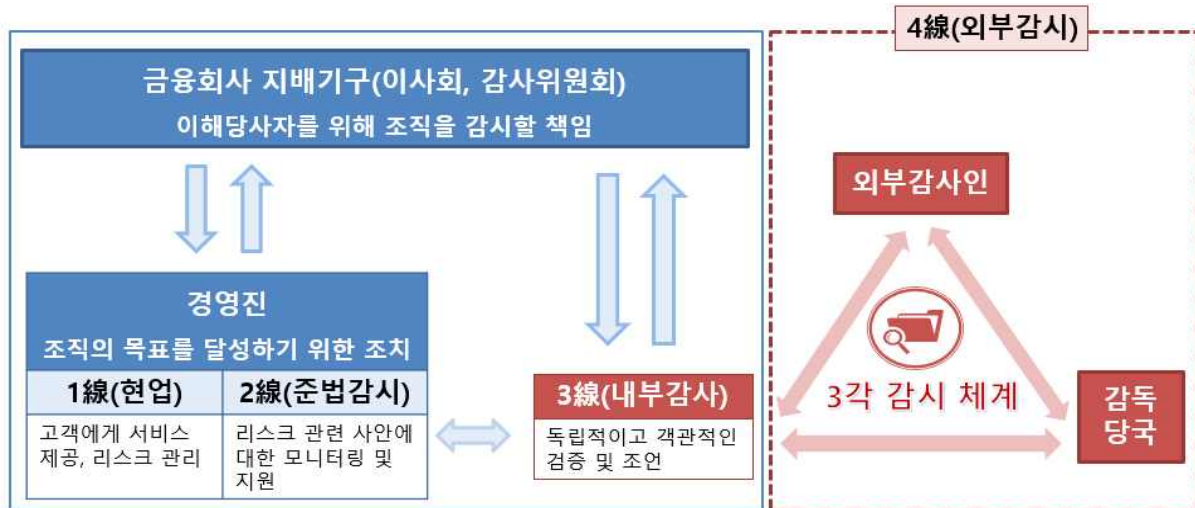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5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외부감사인인 참여하는 4선*방어체계(Four Lines of Defence) 구축을 권고

* 3선방어체계(금융회사 내부) +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

-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 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내부통제의 4線방어체계 적용도



□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이 존재하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공감하였습니다.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함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계가 개선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 금융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 등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 향후 감사인감리시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붙임)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외부감사 연계 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내부통제 개선과제와 외부감사 연계 기본 방향 >

① 금감원과 금융업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과제 중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 평가

②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여 외부감사* 신뢰성 제고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모든 내부통제를 대상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의 고유한계가 존재하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참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외부감사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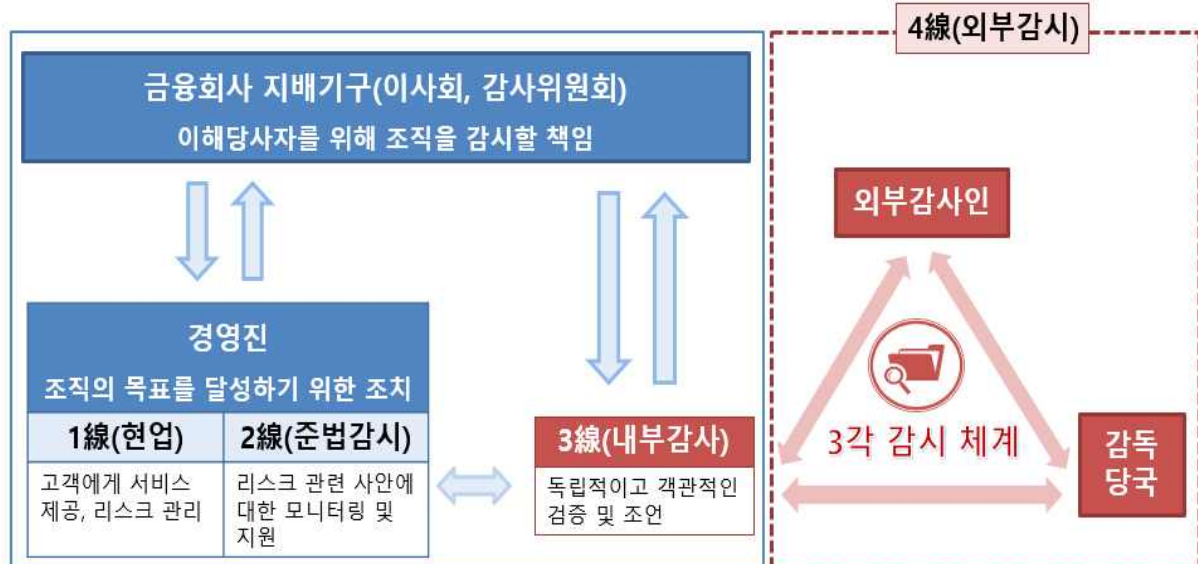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5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 외부감사인이 참여하는 4선*방어체계(Four Lines of Defence) 구축을 권고

* 3선방어체계(금융회사 내부) +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

□ 독립적인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의 감시역할을 강화하여 금융회사 내부감사와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 체계를 마련

* 금융회사 내부감사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내부통제의 4線방어체계 적용도



1. [Control]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① 순환근무제 · 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 **(개선안)** 순환근무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명령휴가 대상 확대, 불시명령 시행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

* <은 행> 장기근무자 목표비율 관리, 예외허용절차 강화, 예외 근무기간 한도 설정 등
<저축은행> 내규화를 통해 순환근무제 원칙 도입, 예외허용 절차 마련 등
<상호금융> 운영주기 강화, 예외기준 정비 등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다른 효과적인 예방통제가 없는 경우 순환근무제 · 명령휴가제 등이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 관점에서 적정한지 검토
 - 필요시 순환근무제·명령휴가제 운영기준·절차의 합리성을 평가(설계평가)하고 제도의 형식적 운영 여부 점검(운영 효과성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순환근무제도 운영기준 미흡)** 직무순환 예외 허용 사유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부서장 등 재량으로 직원 장기근무 가능
- **(명령휴가제 부실 운영)** 불시 명령 휴가대신 담당직원이 예정한 휴가로 대체하여 운영하거나 10년 동안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를 담당하였음에도 동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음

개선안(예시)

- **명령휴가제도 세부 운영기준**

- ① **(명령휴가 대상자)** 위험직무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영업점, 본부부서 모두)
- ② **(강제명령 의무화)** 위험 직무 등에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휴가 실시
 - 위험업무 또는 장기근무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휴가 또는 파견시 점검 등 대체수단 허용
- ③ **(명령방식)** '불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시간을 제한
 - (예) 명령휴가 전일 오후 5시 00분~명령휴가 당일 오전 9시 00분 등

②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 **(개선안)** 직무분리·중요증서 분리보관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ID와 비밀번호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 강화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직무분리 대상 판단기준 및 관리기능 구축여부, 준법감시부의 점검기준·절차 마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직무분리 등과 관련한 기준 및 통제절차에 미비점 등이 없는지 평가 등*

* (예시) 통장, 인감 등의 분리보관 등 관리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승인권자 부재 시 위임 등의 절차가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회사가 설정한 직무분리원칙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전사적수준 통제 관점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구축 여부 점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직무분리 미흡)** 직무분리, 통장·인감 분리보관 등에 대한 구체적 관리기준이 없어 위험성이 있는 주요 업무(구조조정·IB 등)에 미적용하거나 본부부서에서 통장·인감 관리직원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인이 모두 관리
 - 통장, 인감 등을 분리 보관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접근 가능
- **(비밀번호관리 미흡)** 비밀번호를 통장·단말기 등에 부착하거나 업무편의 목적으로 직원간 공유하거나, 승인권자 부재 시 위임 등의 절차가 설계되지 않아 타 직원이 승인권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승인

개선안(예시)

① 직무분리 관련 세부 기준 마련

- ① **(분리대상 필수직무)** 직무분리(검무제한) 대상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

* (예) 일반대출 : <Front> 대출영업 <Back> 서류 진위확인, 심사, 기표, 송금지급 등
여신심사 : <Front> 여신심사 <Back> 감정평가사 및 법무사 지정 등

- ② **(관리시스템 운영)** 직무분리 대상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

- ③ **(점검실시)** 직무분리 운영현황을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점검 실시

② 접근통제 강화 방안

- ① **(접속방식 변경)** ID/비밀번호 방식 운영시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방식을 본인인증(신분증, 핸드폰 등) 또는 생체인식 방식으로 고도화

- ② **(전산적 차단장치)** 단말기 IP주소와 담당직원을 연동하여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도록 제한 등

③ 결재 단계별 문서 등에 대한 검증체계 강화

- **(개선안)** 자금인출(이체)시 결재 단계별* 검증절차 및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통제절차 강화

* 기안(자금인출요청서 등) → 직인 날인 → 지급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절차를 식별하여 설계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되는 통제절차 등의 마련 여부 점검

- 수기문서 전산등록 통제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진위 여부 검증 절차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평가 등*

* (예시) 자금인출 시 수행되는 거래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외부 수신문서의 대사절차 수행 여부 점검, 전산 등록된 중요 수기 문서에 대해 중요 정보의 일치 여부를 사후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검증미흡)** 출금전표 및 대외발송 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상이함에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되어 금융사고 예방·적발 실패

개선안(예시)

①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기능 의무화

- **(은행)** 직인날인 및 자금지급시 기안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내용 일치여부 확인 등
- **(저은여전)** 결재시 지출결의서 등 관련증빙 확인,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 절차 마련
- **(상호금융)** 지출결의서 작성(신청)과 집행내역간 상호검증 등

② 수기 기안 문서 전산등록 및 외부 수신문서 등의 문서진위 여부 검증절차

- **(은행)** 수기기안문서 전산 등록 의무화, 외부수신문서 검증 강화 등
- **(저은여전)** 수기문서 및 외부수신문서의 전산등록 의무화, 준법감시부서 등 점검절차 마련
- **(상호금융)** 시재금 검사결과표의 전산 입력·승인 등 전산 통제방안 마련

④ PF대출 자금집행 관리 강화

- ☐ **(개선안)** 직무분리,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전산시스템(송금) 개선 및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등 마련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금융회사 내부통제 설계의 적정성 평가시 PF대출시 영업·자금집행 직무 미분리, 자금인출요청서 검증 소홀 등 미비점 등을 식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직무미분리 등)** PF대출 담당직원이 PF대출 영업·기표·송금업무를 전담 하면서, 송금시 계좌주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중요증서(차주 전표·통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 횡령

개선안(예시)

- ☐ **PF대출 자금집행 관련 사고예방 대책(예시)**
 - ❶ **(직무분리)** PF대출 영업업무, 기성고에 따른 대출기표(승인)업무, 자금송금 업무 담당부서(또는 담당자) 분리
 - ❷ **(수취인명 임의변경 차단)** 송금시 수취인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개선
 - ❸ **(지정계좌 송금제)** 사전 등록한 지정계좌(신탁사·거래처 계좌 등)로 PF대출금이 입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지정계좌 등록·변경시 사전 확인절차 강화
 - ❹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회사 공용메일 등을 통한 자금인출요청서 수신, PF 대출금 송금시 차주 앞 문자발송, PF대출 잔액 정기통지 등

⑤ 채권단 공동자금 정기검증 절차 마련

- ☐ **(개선안)**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검증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자금에 대한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채권단이 확인하는 절차 마련 여부 점검

※ **(미흡사례)** 워크아웃 기업 매각진행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자금 관리 현황을 확인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횡령

⑥ 대출취급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 ☐ **(개선안)**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가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대출취급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절차 구축 여부나 진위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체확인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진위검증 미흡)** 일부 차주가 작업대출 조직이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진위확인 절차가 없어 부당대출 발생

개선안(예시)

- ☐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 및 추가확인 절차 강화**
 - 대출증빙은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를 원칙하고 **진위확인 가능 서류는 담당자가 반드시 진위확인 절차 수행**(예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력 조회)
 -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

* (예시) ① 해당기관에서 자료를 팩스로 수신하거나 직접 유선통화
② 차주 제출서류에 대해 현장방문 또는 제3자 통화 등으로 재확인

⑦ 자동차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 ☐ **(개선안)** 자동차 대출 취급시 대출금 지급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소득증빙서류의 진위확인 절차 마련 등 통제장치 강화 추진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대출금 지급의 적정성 확인절차 마련 여부 및 대출서류 진위여부 검증절차의 구축운영의 적정성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관련 참고사항

미흡사례

- 대출모집인이 판매점에 지급하여야 할 중고 상용차금융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허위 차량을 이용하여 딜러론 편취
 - * 상용차는 승용차 대비 대출금액이 크고 차량 명의이전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차주에게 직접 입금시 용도와 유용 등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렌트카사업자가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고 명의를 대여를 요구한 후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할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편취

개선안(예시)

- ☐ 에스프로 계좌를 활용한 대출금 지급 등 **대출금 지급 방식 개선**하고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대출금이 판매점에 지급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 ☐ 명의대여 개연성*이 있는 경우 기 보유 차량 실사용 여부, 대출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절차를 강화
 - * 다수의 자동차 대출 보유, 특정 시기에 다수의 자동차대출 실행 등

2. [Capability]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①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 ☐ **(개선안)**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자점감사 대상 항목*을 개선

* 예) <저은> PF대출 자금집행, 고액 경바·자본예산 집행, 중요실물 관리실태, 고객 원장변경 등 추가
<상호> 일일 자점감사 항목에 시재금 점검 포함 등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자점감사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장치, 모니터링*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자점감사 대상항목의 적정성 검토

* 자점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은행·저은·여전) 등에서 점검하여 이행실태 부실 부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페널티 부여, 취약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 마련

② 은행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

- ☐ **(개선안)** 이상거래 상시감시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시 보고·처리 절차 체계화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상시모니터링 대상에 본부 부서 업무 포함여부, 이상거래 확인시 보고·처리 절차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③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 ☐ **(개선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 등을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절차*의 마련 및 운영 여부에 대해 점검

* 예)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및 소형조합의 경우 여수신 업무 등 금융사고 우려 업무 겸직 금지

3. [Culture]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제도 실효성 제고

- **(개선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구체화**

* 예) 직원 자체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 적발시 내부고발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포상 실시,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한 포상방안 마련 등

** 예) 자체감사시 내부자 고발의무 위반을 필수 감사항목으로 운영 등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전사적수준 통제 관점에서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의 합리성 및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마련 여부 등 확인

② 금융회사 자체 「금융사고 예방지침」 실질화

- **(개선안)** 기존 법규 내용 중심의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보다 구체화*

* 예) <은행> 영업 특성을 고려한 부점별 금융사고 예방지침 구분, 사고예방 활동의 업무별·직급별 역할·책임의 명확한 명시 등(개선)

<저은·여전>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업계 표준안 마련

<상호금융> 신협·농협·수협·산림 등 업권별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개선)

※ 금융사고예방지침 표준안(예시)

- ① **(범죄행위 방지대책)** 명령휴가제, 고위험사무 직무분리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명시
- ②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고예방교육, 지침 실효성 정기점검 및 최신화 의무부과
- ③ **(이행상황 자체검사)** 단위업무·직급별 점검사항 마련, 자점감사, 준법감시부서(또는 감사부) 점검, 명령휴가자 특명검사 실시 등
- ④ **(업무상 고객정보 이용기준 등)** 직급별·업무별로 조회권한 차등부여, 마케팅 동의서 內 명시된 정보만 이용 등

- **(외부감사시 고려사항)** 권역별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여부,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금융회사의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통제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